

코리엔의 수명일기 <F>



황성수

(주)한국가스기술공업
경영기자사업소장

나는 내게 기억된 삶 중에서 잘못된 삶과 후회스런 삶 그리고 용서해 줄 삶을 지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녹화테잎이 내게 있는 한 내가 무슨 재주로 수행을 쌓아가며 무슨 신통이 있어서 감히 견성의 '기역' 자인을 꿈이나 꾸겠는가. 그러나 잠으로 신기한 일이 기억처럼 내게 일어나고 있다.

마음 다스리는 공부 할수록 즐거워

상대방에 상처주는 업 짓지 않도록...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해야지 하고 생각한 순간부터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매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선 내 가족들이 나보고 참 이상해했다고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직장 내 부하 직원들도 내가 변했다고 느끼는 듯했다. 지우는 작업은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는다. 앉아 있으나 가나 오나 밥 먹으나 잠 잘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과거의 업장은 무조건 내려 놓는 연습을 한다. 어떤 생각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계속 내려놓으면 갈수록 그 생각의 파괴력은 현저히 약해짐을 느낄 수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기억은 이제보니, 내 기준으로 본 것이었으며, 사실 놓아야 할 기억들 중 상당 부분은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기억들이라는 사실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사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황

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놓는단 말인가? 난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 코너에서 대행(한마음선원장)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냥 마음이 마음에게 주고 받고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과거에 고단한 삶을 살 때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나를 위로하며 터득한 방법과도 유사하다. 수없이 여러 번 내려놓아야만 그 색깔이 희미해 지다가 마침내 꼭 없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놓고 또 놓고 한다. 때로는 한 생각을 놓으려다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큰 생각을 일으키는 걸 보고선, 이물이 참 요상하고도 요상한 물건인 걸 알게 되고 스스로에게 더 큰 채찍으로 쓰기도 한다.

나는 최소한 이생에서 내가 지은 것을 놓지 않고서는 설사 돈으로 한다고 해도 그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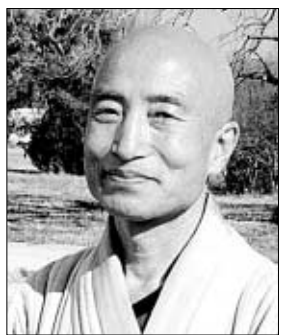
“지혜, 공덕 성취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길”

정목스님의 염불수행

춘천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이 활발한 인터넷 포교와 저술 활동으로 염불 수행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원효의 새벽이 온다> <염불수행의 원리와 비결> <도로 아미타불> 등 7권의 저서를 펴낸 바 있는 정목 스님은 인터넷 '아미타파' (www.amitapa.co.kr)를 통해 염불 법문을 설하고 있다. 매달 1회 이상 춘천교도소에서 250여명의 재소자를 지도하고, 춘천 지역 5개 대학교 대불련 법회에서 수시로 법문하고 있는 정목 스님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염불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설한 다음 카페(cafe.daum.net/amitapa)에서는 1달 만에 회원이 400여명이 넘어설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사에서 벽과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정목 스님은 생계사와 법어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강사 소임을 지낸 후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다. 간화선을 두다가 염불 수행으로 전환한 후, 98년 특력(得力)한 스님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상한 법문과 글로 많은 불자들의 환희심을 자아내고 있다. 8월 23일 춘천 정토원에서 점심 공양도 거른 채 진행된 7시간에 걸친 인터넷 법회에서 정목 스님은 “한국 정토수행의 이론 정립과 원효의 일심정토사상을 선양하는 불사에 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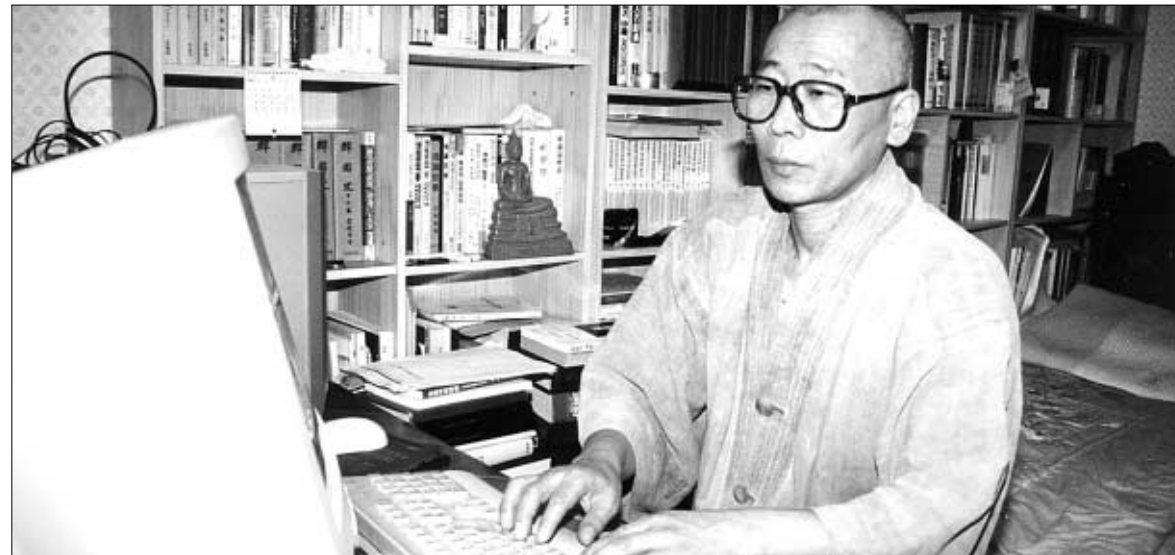
▲스님께서 간절하게 염불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염불과 인연이 있거나, 제가 은혜입은 분들에게 염불법을 전하고자 서원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간과 지성, 재화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도 반드시 자비광명이 감응하는 생산적인 도(道)를 일러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생산적인 도”라?
“염불행자는 깨달음을 위해 생업을 버리지 않습니다. 염불은 이 시대의 법부가 실천해서 지혜와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생산적인 도입니다. 한가한 시간마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독송하고,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십시오. 생활하면서 일체의 인연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자주 익히나하면 자연히 수행의 경계는 깊어지고 지혜와 복덕이 증장할 겁니다.”
▲벽에 써놓은 '아미타불은 진리요 생명요 광명이다'는 글이 염불행자들의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아미타불의 법신(法身)은 연기법을 깨달아 일심을 증득한 지혜광명이다. 보신(報身)은 무한생명과 무량광명의 덕성이며, 응화신(應化身)은 증생을 위해 베푸는 무량한 자비광명입니다. 삼신은 일체이니 아미타불은 진리요 생명요 광명입니다. 깨

수덕사 발심회, '돈오입도요문론' 특강



◇설정 스님.

수덕사 발심회(회장 수암, 용봉사 주지)는 9월 1일 오후 5시부터 5일까지 수덕사 황하루에서 설정(덕승총림 수좌) 스님 초청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 특강을 갖는다. <돈오입도요문론>은 당나라 때의 선사 대주 혜해(大珠慧海) 스님의 어록집이다. 대주 선사가 마조도일(馬祖道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인터넷 '아미타파'와 다음카페를 통해 염불행자들을 지도하는 정목스님.

인터넷과 저술활동 통해 보급 앞장 체험살린 법문과 글로 불자들 인도 “감사의 마음으로 닦으면 복덕 증장”

답글과 아미타불과 정토는 셋이면서 하나인 관계입니다.”
▲스님의 저서 중에 <도로 아미타불>이란 책이 있던데요. 그 책 제목이 염불의 깊은 뜻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는 듯 한데요.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쓰다가 실패했을 때 '도로 아미타불(徒勞阿彌陀佛)'이라고 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왕생을 믿고 염불하면 모든 것이 아미타불 화신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정말로 놀라면서 '우야! 도로(都羅) 아미타불' 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번뇌가 멸진되지는 않았지만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광명을 믿고 알아서, 일체의 인연과 은혜에 감사하는 깨달음, 이것을 나는 '도로 아미타불'이라 했어요.”
▲칭명염불을 통해 왕생하게 된다는 '서방의 정토(극락)'가 '마음의 정토(유심정토)'와 둘이냐고 공중할 수 있나요?
“본원의 힘을 믿고 행해서 정토에 왕생하면, 대상으로 마주하던 아미타불과 정토는 신해(信解)가 깊어지면서 '마음의 부처', '마음의 정토'로 환원됩니다. 정토에 왕생함으로써 보신의 덕상과 화신의 자비에 감화되어 일심의 경지를 증득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일심은 신앙의 빛이 궁극에 이르러 시공에 초월한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정토'는 어떻게 관해야 합니까?
“일심의 경지에서 바라본 정토는 광대무변하되 턱스름으로 가득하고 광명이 교차하는 한마음의 세계입니다. 일체의 경계는 진리를 설하고, 물물은 무아(無我)이되 자신의 덕성을 무한히 베풀어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한마음의 세계에서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은 생명으로 약동하는 광명의 물결입니다.”
▲스님께서 염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과 정토의 경계를 관하는 '관상염불(觀相念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상염불은 아직 낯선 수행법인데요.
“관상염불은 지관(止觀)의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정토의 경계에 대한 신해(信解)가 깊어지면 이 땅에서도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관상염불은 청정한 자연과 인간, 일체 생명으로 나타나는 천백의 화신 즉 무량한 자비광명을 관하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속에서도 닦을 수 있는 염불 수행의 요체는?
“일체의 경계는 번뇌의 어둠을 소멸하고, 세상을 밝히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광명의 물결이자 아미타(Amita)의 물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일체의 경계를 이와 같이 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범부의 의식으로 행하는 관이지만 관상염불이 깊어지면 욕망과 분노와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혜가 증장하고 복덕은 자연히 늘어나죠. 염불은 좁은 의식세계를 넓고 깊게 펼쳐서 궁극적인 자체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마음의 과학입니다.”

춘천=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선사의 문하에서 6년간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돈오입도(頓悟入道)의 요지를 서술한 선어록이다. 이 책에 따르면 해탈은 오로지 돈오(단박 깨침)에만 있다. 여기서 '돈'은 일시에 망념을 없애는 것이며, '오'는 무소득(無所得,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발심회는 지난 86년 출범한 수덕사 출신 수좌들의 모임이다. 수암 스님은 “설정 큰스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공부들 점검하고 발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공부오임을 간게 됐다”고 말했다. (041)634-6777

대주선사어록 강해 및 철야참선

공주 학림사 오동시민선원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7시50분 요가 수행, 저녁 8시 학림사 조실 대원스님의 '대주선사 어

록 강해 법문'에 이어,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참선 용맹정진과 108배를 실시한다. (042)825-0515

명상아카데미, '깨달음의 길' 수련

서울 명상아카데미는 9월 9-14일 제1차 특별수련(신화과정 이상), 19-21일 행복명상(NGO 추천자, 실직자, 학생), 21-25일 제2차 특별수련(일반인)을 실시한다. (02)598-7180

우곡선원 참선교육 강좌

서울 우곡선원(원장 정명화)은 9월 16-28일 2주간 제15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10시, 일요일 오후 4-9시다. (02)2055-3111

金烏불상 "천년의 풍경"



기존풍경에서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못하며
대구성이 각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수명이 짧고
일반주물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오불상은!!

금오 불상 풍경의 특징

자세 입금하여 재질의 순도가 높아 소리가 맑고 맥놀이까지 가능합니다. 각 연결부위를 스텐 및 특수주물로 제작하여 물고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 빈 영구적입니다.

용소각의 쇠고 권위자가 조각하여 섬세하고 기품있는 외형은 풍경중에 백미이며 금오불상에서만 유일하게 제작합니다.

판매금액은 百萬원이나 기존 풍경 반납시 1set에 800,000원에 판매합니다. (반납된 풍경은 군법당 및 소규모 사찰에 무료 시주됩니다.)

- 풍경제원 ▶ 높이 : 22cm (웅두 4cm)
- ▶ 넓이 : 14.7cm
- ▶ 무게 : 2.6kg
- ▶ 재질 : 동 98%, 실리콘 1.8%, 기타 0.2%

전화번호 032)672-3136, 011-412-3136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701-01-187922 예금주 이성권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탐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